

국보·보물 지정번호 폐지 '문화재' 용어 변경

현행법 1962년 제정... 동명 일본법 영향

국제 기준과도 달라... 대체 단어로 '유산' 검토

지난해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 번호를 없애 문화재청이 올에는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 변경 작업에 돌입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용어와 분류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방침을 확정된 뒤 하반기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분류 체계를 보면 건축물, 서적, 미술품 등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관습 등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동명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법률을 많이 차용했다"며 "명칭, 분류체계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 느낌이 강해 자연물, 사람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거에 얽매어 미래 지향적 느낌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분류 체계 역시 국제 기준과 달라 이

에 대한 불편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실제 유네스코는 분류체계를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일단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로 '유산'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의미하며 향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3~4월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분야 전문가 의견 등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 하반기 법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성은 2005년부터 거론돼 왔다. 당시 연구 용역 등의 작업이 계속 진행됐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아직 '유산'이라는 용어가 확정된 건 아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미술관 소장 조선시대 묘지석 18점, 한국에 돌려보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2016년 밝혀... 반환 첫 사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소장하던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외기관에서 소장하던 묘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8일 '백자청화이기하묘지'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10일 밝혔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돌이나 도판으로, 지식 또는 '묘지석'이라고도 불린다. 묘지를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문종의 경의를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무덤 내부에 관과 함께 묘지를 매장하는 것이 중요한 추모 관행의 일부였다. 이 묘지는 조선 후기 훈원대장과 공조판서 등을 역임한 무신 이기하(1646-1718)를 추모하는 기록으로, 가족사에서 정치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총 18점으로 구성된 이 묘지는 백토를 직사각형의 판형으로 성형해 청화 안료로 글씨를 썼다. 판의 우측 단면에는 묘주의 관직 및 이름과 함께 총 매수 중 몇 번째인지 쓰여 있어 이 묘지가 온전한 한 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지명 말미의 기록으로 사후 묘지가 제작된 연대(1734)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청화 발색이 선명하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진행한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실재조사에서 이 묘지를 확인했고, 2020년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한산 이씨 문종이 원소장자임을 알게 돼 이를 문종에 일했다.

분실됐던 묘지가 클리블랜드미술관에 소장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산 이씨 정익공파 문종 대표 이한석씨는 사실 확인과 이후 조치를 위해 미술관과 교신 등 대응을 재단에 위임했다. 미술관은 재단과의



백자청화이기하묘지.

협의를 통해 본래 이기하 묘소에 묻혀있던 '백자청화이기하묘지'를 한국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기하 묘소는 원래 시흥군 향토유적으로 1988년부터 지정 관리되다가 1994년 경기도 이천으로 이장됐는데 이때 이한석씨가 묘지를 수습했다. 당시 묘지는 이장한 묘에 함께 묻지 않고 한산 이씨 문종의 원묘로 보관하다가 이후 분실됐다.

묘지는 1998년 미술관에 기증됐는데 미술관은 2020년 말 재단을 통해 이한석씨로부터 연립반을 때까지 묘지와 문종이 분실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미술관 관장 윌리엄 그리스워드 박사는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한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이 사안을 우리에게 알렸을 때 모두가 함께 올바른 결과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관으로부터 묘지를 돌려받은 이한석씨는 현재 이기하 선생의 묘소가 충남에 있는 것을 고려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산하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박물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충남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조사 및 교류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귀환하는 이기하 묘지는 4월 초 기증행사와 특별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동학농민군 옥중 한글 편지, 문화재 됐다

대통령 전용 디젤전동차 등 철도차량 4건 등록 예고

감옥에 수감 중이던 동학농민군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역대 대통령 지역 순방시 사용했던 디젤전동차 등 철도차량 4건은 등록이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동학농민군 편지(2022)'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협계 디젤동차 163호', '협계 객차 18011호', '대통령 전용 디젤전동차',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등 철도차량 4건을 등록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동학농민군 편지(2022)'는

전남 화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나주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달문(1859~1886)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직접 쓴 옥중 한글 편지본이다.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상'(고생), '갈피'(글씨), '직시'(즉시) 등 전라 방언 특성이 담겨 있고,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작년에 등록된 유광화의 '동학농민군 편지'와는 대조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

다. 유광화의 편지는 양반가 자제인 유광화(1858~1894)가 필요한 군자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쓴 한문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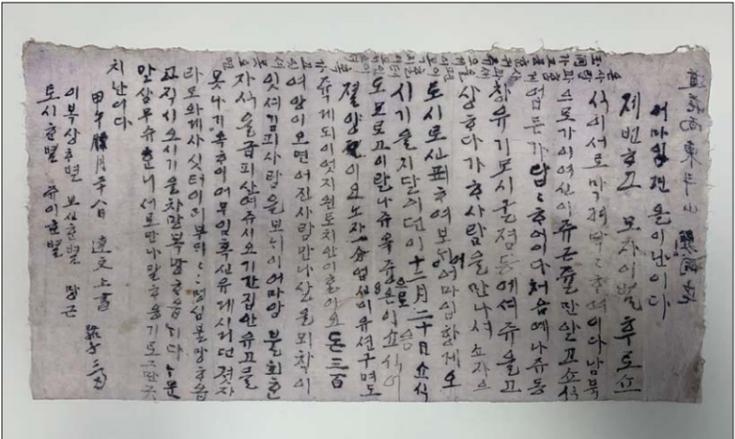
'협계 디젤동차 163호'와 '협계 객차 18011호'는 1965년 인천공작장에서 제작됐으며, 1930년대 개통된 협계철도 수역선, 수인선에서 운행했다. 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와 서민들의 낭만과 애환이 담겨 있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이다.

'대통령 전용 디젤전동차'는 기존에 등록된 '대통령 전용 디젤전동차'와 달리 기관실과 객차가 연결된 전용차량으로 제작됐으며, 내부구조는 대통령 집무실, 침실, 수행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대 대통령(박정희~김대중) 재임기간에 충북선 북선 선로개통식, 대전엑스포 개막식 등 지역 순시를 함께한 역사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4년 제작돼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운행한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터우형 증기기관차다. 운행종료 후에는 철도학교 박물관으로 이전해 단면을 절개해 내부구조와 작동원리 이해를 위한 교육용으로 80년 이상 활용되고, 최초 국내 제작된 터우6형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 기관차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 예고된 철도차량 4건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뉴시스



동학농민군 편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 13개 시·군 '찾아가는 예술극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올해도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예술극장'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예술극장'은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 혜택을 함께 나누는 전당의 대표적인 공공문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소재 비영리 기관 및 단체와 교육·복지 및 의뢰기관 등이다.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퓨전, 타악 복합장르 등 각 단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당은 신청단체의 요청장르와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공연단체를 우선적으로 섭외해 찾아가는 예술극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희망 단체는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전당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단체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발표된다.

전당 관계자는 "신청 모집이 마무리되면 공연단체 선정부터 일정, 장소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